

## 학교학습에서 기본 교과의 기능



교과가 학교교육에 있는 이유는 학문적 목적보다는 교양적·교육적 목적에 서이다. 중세시대 7자유과가 그러했듯이, 교과들은 교육과 학습에서 각자 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들은 전체로서 포괄적·망라적 기능을, 개별적으로 독특한·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교과는 그 대상이나 내용 혹은 방법보다 '목적'으로 나눌 때 설득력이 가장 높다. 기본 교과 구분은 IB MYP나 호주 등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기본 교과는 국어, 외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공학(STEM), 예술, 체육의 8개로 나뉜다. 이들은 다시 문과(국어, 외국어, 사회), 이과(수학, 과학, 기술공학), 예체과(예술, 체육)라는 세 개의 교과목군으로 묶인다. 대체로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에서는 8개의 기본교과로 나뉘고, 그 아래에서 교과들은 더 통합 미분화되고, 그 이상에서(대체로 고교부터는) 진로별로, 대학에서는 전공별로, 대학원에서는 매우 전문화되어 세분화되며, 그 이상의 학문과 직업에서는 각 사람이 다른 것을 추구할 정도로 개별화된다.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과의 기능을 교과별로 간단히 살펴보자. 국어는 학습자로 하여금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영어와 같은 외국어는 해당 언어권에서 교양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사회는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사회문화와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그 학습을 통해 국가와 지방, 국가를 넘어 지역과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규범을 배우고 익혀 조화로운 선(善)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수학은 수와 도형을 통해 세상을 계량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절차적으로 정확히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한다. 과학은 자연과 사물의 세계를 합리적·원리적·법칙적으로 이해하고 실험 검증하도록 돕는다. 기술공학은 수학과 과학의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주와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실용적 효용을 추구한다. 또한 예술은 우주와 인간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감상할 수 있게 한다. 체육은 운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이들을 다시 큰 틀로 묶어보면, 문과(국어·사회·외국어)는 주로 국가적·공동체적 선(善)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과(수학·과학·기술공학)는 보편타당한 진(眞)을 탐구하며, 예체과는 상대적으로 개인적·감성적 미(美)와 건강을 추구한다. 가령 사회과는 운명적으로 ‘국가적 선을 옹호’하기 위해 태어났다. 어떤 제국(帝國)은 자신을 세계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천사이고 경찰이라고 확대 과장하기도 하지만, 사회과는 많은 나라에서 천사이자 세계 경찰이라고 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과는 자국의 정의, 평화, 정체성, 정통성, 지속가능발전성을 옹호하기 위해 학교에 존재한다. 한마디로 애국심 함양이 그 목표다.

원교근공(遠交近攻)하는 인근 경쟁국들이 그 옹호를 악이라고 비난하여도 해당국은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이고,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서 평화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사명을 띤다. 이런 노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잘 드러나고, 분단 국간 대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자국민에게 이를 ‘합리화, 정당화, 심지어 세뇌’하지 않으면 해당국은 존속이 불가능하고, 존속하더라도 늘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내부 붕괴를 면치 못한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가 설파했듯이 국가 일의 우선순위는 자국의 존속을 위한 안보(Security)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정치적 단합을 통해 국력(Power)을 결집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경제적 번영과 풍요(Prosperity)를 추구하며, 마지막으

로는 자국의 문화적 명성과 위신(Prestige)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H. Spencer가 말한 현대교육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다. 국가적 과업을 사회과를 통해 잘 수행하면 국민들은 단결하고 국가는 오래 지속발전한다. 그래서 각국은 자국의 영웅, 위인, 문명적·문화적 성취,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자국민들을 비롯하여 국내외에 과장 선전한다.

경쟁국은 이런 선전을 왜곡이고 날조이며 ‘헛소리’라고 폄훼한다. 그래도 이를 이겨내고 자국민들에게 선전해야 국가는 존속 가능하다. ‘백두혈통’은 일제에서 나라를 해방 시켰고 대를 이어 미제와 침략자들로부터 인민들을 지켰다는 주장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헛소리라도 북한은 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과 공부는 사실과 관계없이 사실과 사건과 현상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이해, 의견, 해석, 판단, 주장을 앞세운다.

이에 반해 수학, 과학, 기술공학은 세계 표준이 있다.  $2+2=4$ 이고, 오두막집과 달리 100층 건물은 과학기술의 기반 위에 세워야 하고, 종이비행기와 달리 우주선은 중력과 마찰력을 과학기술에 터하여 극복해야 한다. 수학, 과학, 기술공학의 공식, 법칙, 원리를 어기게 되면 거대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부실공사가 되고, 불량품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이를 제대로 구현하면 세계적인 작품과 제품으로 명성을 얻는다.

이과 공부는 힘들고 시간은 많이 걸리며, 시설설비와 재료 등 교육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결국 사회적 수요와 기여도는 높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수학, 과학의 현실적 구현물인 ‘기술(Technology)’이 국가 발전의 성패를 가른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은 세계 패권의 핵심요인이다. 미·중 경쟁은 결국 앞선 기술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예술과 체육은 자연과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미, 건강미를 도모한다.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주관적이다. 파이프를 두고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고, 변기통을 전시하고 마르지 않는 샘을 연상하라고 하면서, 미에 대한 우리의 발상 전환을 요구한다. 세계적인 예술가나 스포츠 스타는 한동안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많은 경우 세계 최고라는 명예를 얻고 돈방석에도 앉는다. 대부분의 장르와 종목에서 소질과 적성은 조기에 발현되기에 적기에 학습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였으나, 전성기는 조기에 도래하며, 많은 경우 짧기도 하다.

교육은 생애주기를 따라 부모와 애착형성과 절대행복 보장(~3세), 사회정서 안정(~5

세), 유동지능을 활용한 이공계 공부 집중(~25세), 이공계 제조업 종사(~50세), 문과식 기업경영관리(~75세)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부는 '유아기-예체과, 아동청장년기-이과, 장노년기-문과, 노년기-예체과'로 이어지면 좋다. 젊을 때는 타고 난 유동지능을 쓰고, 노년에는 경험한 결정지능을 쓰는 것이 순리다.

AI시대이니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과 교수학습의 뼈대에 대해 덧붙인다. 먼저 AI시대 인재는 土(사)자형으로 키우면 좋다. 어릴 때 자연 속에서 인간적 돌봄으로 기본 생활 교양의 토대를 놓고(-), 그 위에 대다수는 이공계 전공 공부를 세우고(I), 다시 직업 현장의 교육훈련에서 AI의 광범한 도움을 받아 한층 높은 전문성의 토대를 놓아서(-), 현장에서 혁신적 전문성(I)을 세워 혁신으로 돌파하는 인재로 키울 일이다.

다음으로, 장차 AI나 AI장착로봇(휴머노이드)이 교사를 대신하여 학습자의 멘토가 될 때, 교육과 교과 학습에서 필요하여 뚜렷이 남는 것은 두 가지다. 교과별 교육과정기준으로 잘 세워둔 학습경로와 일정한 주기에 따라 학습의 성공적 성취를 평가해주는 평가기준으로 잘 세워둔 학습관문이다.

유초중학교까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기를 마치고 진로별 학습기로 접어들 때, 학습자들은 교사를 비롯하여 교육의 여러 요소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점차 외면하기 마련이다. 찾지 않아 그것들이 점점 사라진 뒤에도 학습할 교과의 교육과정기준과 평가기준만은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각론 연구자들은 각 교과의 핵심 가치, 개념, 기능을 잘 세워둘 일이고, 총론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교과학습의 성과를 메타적으로 모아서 세계와 국가 속에서 자아관, 인생관(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을 갖출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소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교육과정기준 개발 전공 강의를 맡고 있음. 생애주기별, 학교급별, 대상집단별, 분야별, 목적별, 주제별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관심이 높음.

선생님,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부족함이 학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더 멋진 수업, 더 특별한 교실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실이 항상 재밌고 특별해야 하죠?

매일 먹는 집밥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든든한 하루.

그저 일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교실에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담담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에겐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오늘도 교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모든 보통의 교사를 응원합니다.

지학사 X 학교 한줄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7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 2024년 발행 부수 기준

Mirae 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터처  
[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